2. 조선 전기

조선이 주자의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천명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기반이 확고해진 16세기 중반부터는 성리학의 학문체계가 정립되었으며, 이학(理學)에 바탕을 둔 유교사상이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사림파의 집권은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의 대립과 갈등으로 학파간의 논쟁이 심화되었다. 퇴계 이황(1502~1570)을 추종하는 세력과 남명 조식(1502~1584)의 문인들 및 구 사림이 연합한 동인(東人), 그리고 율곡 이이(1536~1584)의 학맥을 이은 서인(西人)으로 나뉘어 서로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당쟁이 시작되었다.

동인은 다시 세자책봉문제로 파면을 당한 서인계의 송강 정철의 논죄를 둘러싸고 과격파인 남명계가 북인(北人)으로, 온건파인 퇴계계가 남인(南人)으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623년 인조반정을 계기로 북인이 몰락함으로써 서인과 남인의 양당체제로 재편되었다. 지역적으로 서인은 기호학파를 상징하고 동인이 영남학파로 분류되면서 이들 학파간의 학문경쟁으로 예학(禮學)이 극도로 발전하였다.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한 퇴계의 뒤를 이어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4~1621), 여헌(旅軒) 장호광(張顥光 :1554~1637),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등이 영남학파의 학맥을 이어갔다.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한 율곡의 학맥으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 1548~1631),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 1606~1672),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 등이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었다. 이들은 학문적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었으며, 글씨를 학식・인품・수양과 관련하여 학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말에 연경의 만권당을 통하여 이암이 조맹부에게 직접 글씨를 배워 조선으로 계승된 송설체가 서예의 정도가 되었고, 정주학(程朱學)이 중심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전기까지 통치이념만큼 숭상하고 추종했던 송설체가 퇴조하고 학파간의 차별화와 경쟁에 따른 서체의 변화가 있었다. 영남학파에서는 퇴계가 평생 동안 연찬한 왕희지체(王羲之體)를 계승하였고, 기호학파에서는 율곡의 학풍을 따른 석봉(石峰) 한호(韓護 : 1543~1605)가 송설체와 왕희지체의 장점을 취하여 독창적으로 일구어낸 단아정려(端雅正麗)한 서풍의 석봉체를 탄생시켰다. 이는 한국서예의 전개양상이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효시가 되었다. 다만 영남학파에서는 허목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명가를 배출시키지 못했는데, 허목 또한 학문적 연원이 영남학파일 뿐 출신 지역이 나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시대에 가장 개성적인 서예가로 평가되는 허목은 고문(古文)에 심취하여 깊이 천착한 결과 충전(蟲篆) 형식의 독창적인 전서체를 개발하여 미수체라 했고, 전서의 필법을 응용하여 고고아담(孤高雅淡)한 필치의 해서와 행서로 이름이 높았다. 그런데 허목의 필법은 영남학파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기호학파인 회진(會津)의 송월헌(松月軒) 임득명(林得明 :1767~?), 보성의 태선(台仙) 전학기(全鶴基), 효봉(曉峰) 허소(許炤 :1882~1942)로 이어짐으로써 서예의 학파간 경쟁이 무너지고 기호학파의 독무대로 전개・발전되었다.

한편 인조반정을 계기로 율곡학파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성리학의 학문적 심화와 토착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주체성이 고양되기 시작하였으며 명나라의 멸망으로 그 기류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환경의 변화는 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 발양이라는 당위성과 성리학적인 명분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서풍이 양송체(兩宋體)이다.

양송체는 송시열과 송준길이 학문적 연원이 같은 석봉체의 토대 위에 안진경체를 접목한 서체이다. 이들은 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선두주자로서 송준길이 한석봉의 획에 보다 중후하고 동적인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송시열은 안진경체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여 웅휘한 서체로 풀어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대표적 정신예술로 등장한 양송체는 전 시대의 한석봉 서풍에 안진경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서풍을 창안하는 데 있어서 미적체험에 의한 미의 인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동기를 제공한 인물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양송체의 조형구조가 석봉체와 안진경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안진경체는 김인후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안진경과 유공권의 서법을 김인후만큼 소화해낸 서가가 없었다. 당시의 서풍이 송설체와 왕희지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매너리즘에 빠져 성리학의 이념과 송설체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파악하려는 고정관념이 엄존했던 문화환경 속에서, 창조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안진경체를 학서(學書)의 범본으로 삼고 유공권의 골격에 깊이 천착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사람이 바로 기호학파의 태두인 김인후이다.

예학에 바탕을 둔 당시의 정치·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해볼 때 김인후를 비롯하여 송시열과 송준길이 안진경체를 적극적으로 궁구한 것은, 예(禮)로써 도덕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중국의 안지추(顔之推)에서 안사고(顔師古)·안진경에 이르는 안씨 가문의 학문과 절의의 표상으로 인식된 서체가 바로 안진경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인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안진경체는 양송체를 탄생시킨 모체로 기능하면서, 대유행을 선도하고 남도지역에 깊은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전남·광주 지역에서 글씨를 배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한편 양송체가 출현하기 전에 순천지역에서는 당대의 명필로 손꼽히는 명가들이 탄생하거나 우거(寓居)로 활동하여, 조선 초기와 중기에 걸쳐 서예의 르네상스를 구가하면서 필향(筆鄕)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1390~1453),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1488~1545),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피구자(披裘子) 김여물(金汝岉 :1548~1592),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 : 1563~1628), 북저(北渚) 김류(金瑬 :1571~1648), 월탄(月灘) 이현(李 • :1584~1637), 매계(梅溪) 조위(曺偉 :1454~1503),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 :1417 ~1456), 구암(龜岩) 이정(李楨 : 1512~1571),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 :1542~1621), 청사(菁莎) 정소(鄭沼:1518~1572)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김종서와 박팽년은 송설체를 주축으로 한 안평대군의 서체를 따랐는데, 특히 박팽년은 본관이 순천으로 중년 이후 서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추강집(秋江集)』에 "취금헌은 천성이 말을 아끼고 과묵하며 『소학』으로 율신(律身)하고 종일 단좌(端坐)하였으며 문장은 충담(沖淡)하고 필법은 종요와 왕희지를 흠모하였다."[1]고 한 기록과 『동국문헌비고』의 필원편(筆苑編)에 "선촉체(善蜀體)"란 기록을 살펴볼 때 어려서는 종요와 왕희지체를 공부했으나, 안평대군을 만난 이후 소위 촉체라고 하는 송설체를 연찬하여 필력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박팽년의 묵적(墨蹟)으로 『취금헌 천자문』이 남아 있으며, 주암 겸천서원에 배향하

1) "性沈潛寡默 以小學律身 終日端坐 文章冲澹 筆法鍾王"

고 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발단이 된 무오사화로 인해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순천으로 이배되어 병졸(病卒)한 조위와 순천에 유배 중 1504년 갑자사화로 사사한 김굉필 역시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이들은 그림에도 능하여 유배생활 중 서화로 소일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고 당시에 순천에 은거하고 있던 심종유(沈從柳)·양우평(梁禹平)·장자강(張自綱)·한인수(韓麟壽) 등의 선비들과 함께 진솔회(眞率會)란 모임을 만들어 문예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후 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정이 1563년부터 1566년까지 3년간 순천부사로 재임하면서 김굉필과 조위의 유풍(遺風)을 기리기 위하여 옥천서원과 임청대를 세웠다. 그가 이황의 문인이었던 까닭에 임청대의 전면을 이황의 글씨로 양각하였으며, 비음(碑陰)은 당시 순천의 명필로 알려진 정소가 썼다. 정소는 정철의 동생으로 18세 때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을 포기하였다. 순천에 청사정사를 짓고 소위 승평사은(昇平四隱)으로 불리는 배숙(裵璹)·허엄(許淹)·정사익(鄭思翊)과 더불어 산수를 벗삼고 서화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였는데 글씨는 왕희지 필법에 충실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로 삭직당한 양팽손은 서화에 능하여 당대 제일의 명가로 추앙되었다. 묵죽(墨竹)과 산수화는 가히 신운(神韻)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국립박물관에 그의 산수화가 진장(珍藏)되어 있다.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반목에 의한 을사사화로 1547년 순천에 유배된 노수신 역시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학자로 선조 때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1633년 순천부사로 재임했던 이현 또한 글씨에 일가를 이루어 『국조인물고(國祖人物考)』에 "필법이 일국(一國)에 묘절(妙絶)하니 공경(公卿)사대부 집안과 묘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얻지 못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할 만큼 필명을 얻었다. 순천부사를 지낸 신익도 글씨에 뛰어났는데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지행(志行)이 출천(出天)이고 문장은 과인(過人)하며 필법이 묘(妙)하다."는 기록이 있으며, 1543년 창건된 환선정의 편액을 배사문(裵斯文)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역시 명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여물은 순천 출신으로 그의 나이 20세 때 이미 진사가 되었으며, 30세 때인 1577년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의주목사로 재직 중 세자책봉문제로 파면당한 송강 일파로 몰려 파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최후까지 싸우다가 신립과 함께 탄금대 아래로 몸을 던져 자결한 충신으로 유명하다. 그의 글씨에 대한 평가는 『천고대방(典故大方)』에 "축지산(祝枝山, 祝允明)체를 잘 썼다."는 기록이 있다. 축윤명(1460~1526)은 종요의 해서와 장욱(張旭)의 초서, 그리고 회소(懷素)의 광초(狂草)를 중심으로 득력(得力)한 서가이다. 김여물이 축지산체를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장욱풍의 초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서풍은 그의 아들인 북저 김류의 필치로 이어지고 있다. 부친으로부터 필법을 전수받은 김류는 과천의 「양승지응락묘표(梁承旨應洛墓表)」를 비롯한 금석문과 소수의 묵적이 전해지고 있는데, 장욱과 축윤명의 필의(筆意)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류의 글씨를 평하여 『근역서화징』에는 "골격을 취하되 근육을 취하지 않는 그의 글씨는 왕희지와 왕헌지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나 현존하는 유묵들을 살펴볼 때 해서는 종요로부터 나왔고 행초는 장욱과 축윤명의 필의가 두드러져 『천고대방』의 평가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또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의 별집에 "선서(善書)"했다는 기록과 『해동명신록』에 "필법이 기묘법고(奇妙法古)하고 현사공경(賢士公卿)의 비판(碑版)을 많이 썼다."고 하여 그의 필법이 미려하게 정련되어 당대를 풍미했으며, 벼슬은 영의정을 거쳐 순천부원군이 되었다.

순천의 상징적 조형물인 팔마비는 고려 충렬왕 때 승평부사 최석(崔碩)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것인데, 1597년 정유재란 때 훼손된 것을 1616년 순천부사로 부임한 이수광이 1617년에 중건한 것이다. 팔마비의 제(題)는 대자(大字)로 필명을 떨친 장육당(藏六堂) 원진해(元振海)가 쓰고, 비음을 당시 사자관(寫字官)으로 있던 남창(南窓) 이현성(李玄成)이 썼다. 이수광은 실학의 선구자로 『승평지』를 편찬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는데, 글씨 또한 명필로 전아(典雅)한 조맹부의 필의를 익혀 득력하였다.